



제목	Rumi Soul Fury: Rumi and Shams Tabriz on Friendship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Harper One
발행일	2014. 10. 14.
저자	Coleman Barks
출판도시	New York
페이지수	272
ISBN 또는 ISSN	978-0062350985

내용 요약

루미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인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하다. 루미와 루미의 증세 수피 시집, 그의 영적 친구인 샴스 타브리즈, 그리고 이들과 이들 작품의 최고 번역자로 유명한 바크스가 이번에는 이 둘의 우정을 또 하나의 제목으로 삼은 이 책을 내 놓았다.

이 책에서 바크스는 루미와 샴스를 나란히 놓고 차례로 이 둘을 소개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작품을 골라 엮었다. 루미 편에서는 “오늘 나는 말을 할 수 없다(This Day I Can not Say)”는 제목 아래 루미의 사행시를 모았고, 샴스 편에서는 샴스 타브리즈의 주옥같은 명언을 뽑아 놓았는데, “소울 퓨어리(Soul Fury)”라는 책 제목이 이 부분에 들어있다. 또한 이 책에는 루미와 샴스의 대표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의 번역에 대한 견해, 루미 사행시와 샴스 명언에 대한 언급, 인용한 시와 명언의 출처, 첫 행 중심의 인덱스가 포함되어 있다.

콜먼 바크스 역시 이 책에서 ‘사랑의 종교’라는 주제를 강조한다. ‘사랑의 종교’라는 개념은 루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증세 수피 시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사랑’과 ‘종교’를 동등한 자격과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에 사랑이 종교가 되고 종교가 사랑이 되는 쌍방향적이고 합일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사랑의 행위와 종교적 의례를 동등하게 두고 지상의 사랑과 천상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사랑과 종교의 심연에 도달하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상 및 천상 연인과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결합과 합일을 쉽 없이 추구할 때 비로소 가능해 진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아름다움과 정신적 통찰력이 풍부한 루미와 샴스 타브리즈가 쓴 짧은 시는 인간의 마음, 마음, 영혼에 깊숙이 스며드는 유대감의 기쁨과 무질서를 담고 있다.